



6월11일
금요일

보도자료

생명의땅은품진남
Land of Life, Best Jeonnam

실국	축산정책과	과장	박도환	팀장	김태원	☎	286-6520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전남도, 축산분야 하절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 총력!

-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피해 예방 사업비 86억원 지원 -

- 전남도는 여름철 폭염, 태풍, 호우 등에 대비하여 축산분야 하절기 자연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에 나섰다.
-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, 국지성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크며, 태풍은 1~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. 이에 따라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,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 침수와 파손 등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.
- 이를 위해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피해 예방 사전점검, 재해 특보 발효 시 비상 근무 체제 유지, 신속한 피해 상황 접수 등 긴급 복구를 지원한다.
- 여름철 재해 유형별 축사 및 가축 관리요령 리플렛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에 배부하고, 기상 특보 발생시 문자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.
- 또한, 가축 폐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·군 축산부서 및 전남 동물 위생시험소 등에 신고하도록 해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·소독의 날과 연계하여 축사·분뇨처리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, 분뇨 적정 관리 여부, 냉방장치 정상 작동 여부, 축사 전기 설비 적정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.

□ 특히,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 재해 대응 축사시설현대화 10억원, 가축재해보험가입비 60억원,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0억원을 지원한다.

○ 또한, 1차 추경에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비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 함으로써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어 폭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□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으로 발생되나 축사 정비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”고 강조 하면서, “축산농가에서는 ‘내 가축은 내가 지킨다’는 마음으로 각종 재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에 따라 대처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○ 한편, 전라남도는 선제적 가축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사업 388억원*을 지원한 결과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마리수가 2017년 1,012천마리에서 2020년 18천마리로 98.2%가 감소**하는 성과를 거뒀다.

* 폭염방지 시설·장비 186억원,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62억원,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40억원

**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마리수 : '17) 1,012천마리 → '18) 971 → '19) 378 → '20) 18



깨끗한 물통



차광막 설치



위생적인 축사 관리



지붕위 물 뿌리기



환기팬 가동



쿨링패드